

“대선 후보 광주·전남 공약, 한번 더 보고 투표하세요”

이재명, 국가 주도 광주군공항 이전·전남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 윤석열,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고흥 우주 특화단지 구축 심상정, 녹색교통 등 기후위기 대응·전남권 의대 대학병원 설립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을 맞아 광주·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대선 후보들의 지역 대표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의 미래 발전이 대선 공약 수용과 이행에 달려있는 점에서, 지역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공약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선 공약을 살펴본다.

◇인공지능·군공항 이전·달빛고속철도 등 7대 공약
광주지역 대선공약은 크게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군공항 이전,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으로 압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광주발전 7(지역)·3(전남 공동)공약’으로 지역민의 표심을 파고 들었고,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7대 지역공약과 함께 선거 막판 ‘복합 쇼핑몰 유치’ 등을 추켜들며 맞불을 놨다.

먼저 군공항 이전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국가 주도 군공항 이전 지원을 최종 공약안 중 첫 번째로 명시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군공항이전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신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주도 이전 지원을 못박았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월만 해도 광주 군공항을 가덕도 신공항 지원에 맞춰 적극 지원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광주시는 군 공항은 국가 중요 국방시설이고,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불가피한 만큼 국가 주도의 이전 사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끝에 이 후보의 최종 공약에 반영했다.

윤 후보도 도심 광주군공항의 이전을 광주 7대 공약 중 6번째로 제시했으나,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등 일부 내용은 빠졌다. 대선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이전부지내에 광주의

비전을 담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제안했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이전 등 원론적인 약속만 담아냈다.

양 후보는 광주시의 핵심 미래 사업인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윤 후보는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광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가 AI집적단지 중심지로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국가 AI데이터센터·광주과학기술원 등과 연계해 산학연 AI클러스터를 구축하고,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AI영재고 설립, AI-메타버스 융합도시 조성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도 AI융합 메타버스 신산업단지 및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국립 인공지능 연구원 설립, AI종합교육센터 설립 등을 통해 광주를 국내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대표 기업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광주시에서 AI산업 발전의 필수 요건으로 적극 요청한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 후보는 또 달빛동맹을 맺은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착공(예비타당성 면제)과 빛그린 산단 일원 ‘미래자동차 융합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에 대해서도 이견 없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광주형 스타트업 벨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완성, 5·18 정신의 현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등을 대표공약에 포함했다. 윤 후보는 광주-영암간 초고속도로 건설,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수립 등을 이 후보와 차별화한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광양항·우주산업·관광 등 전남 공약-전남도는 ‘으뜸전남 미래전략’으로 8대 전략



투표 앞두고 개표기 시연을 시연해보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체육관에 개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개표 종사원들이 개표기기를 시연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70개 과제를 마련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 공약 및 국정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 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와 정책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개 부문 29개 과제, 국민의 힘은 8개 부문 24개 과제를 각각 공약으로 채택했다. 정의당은 4개 부문 24개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 조성 관련 신재생에너지 허브스테이션 구축 등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등을 ▲첨단전략산업 선도지역 조성 관련 여수-광양항 그린 스마트 항만 전환, 남해안 광역탄소소재벨트 구축 등을 약속했다.

또 우주산업 전진기지 조성 관련 우주발사체 중

합치원센터 설립, 항공우주연구원 전남본부 설립, 민간발사장·연소시험시설·발사체 특화산단 조성 등이 ▲문화·해양·생태 관광의 중심지 조성 등이 각각 포함됐다. 이밖에 스마트 농수축산업과 식품산업 육성 관련 국가 첨단 농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등을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관련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국립심뇌혈관센터 조기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확대와 관련 호남선 조기 완공 및 전라선 고속철 조기착공 ▲다도해 서산인웨이 해양관광도로 단계적 지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신공항경제권 조성 등이 각각 공약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관련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등을 ▲광양항 관련 3-3단계 완전 자동화 ‘컨터미널’ 구축 등을 각각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고흥 우주항공산업 관련 우주기업 특화산업단지, 우주기업 지원센터·발사체 시험인증센터 구축 ▲전남형 푸드바이오펀더 조성 관련 인공지능기반 스마트팜, 6차산업 관광자원화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화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관련 예방·치료 연구개발 센터와 바이오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등과 서남해안 해양생태 관광양벨트 조성 관련 장흥-고흥 연륙교·신안다도아문드 제도 진도-조도 연도교·완도 보길-노화-소안-진도-신안 하대, 해남-신안 장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관련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등이, 무안국제공항 관련 공항 육성 관련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물류산업 역량 강화 등이 공약에 들어갔다.

정의당 심 후보는 ▲에너지전환, 녹색교통 등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한 농어민의 삶 대전환과 관련 모든 농어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 ▲전남형 먹거리 체계 구축 ▲기후재난 피해 농어민 보상체계 확립(농어업재해 보상률 80%)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한, 차별없고 안전한 일자리와 노동 ▲골목까지 따뜻한 복지 전남과 관련 전남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전남 동부권 닥터헬기 도입 및 공공형 심리치유센터 설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일주일째 1만명대...위중증 병상 가동률·사망자 수 급증

광주 6473명·전남 6014명 확진 병상가동률 77%·12명 사망

광주·전남에서 일주일 연속 1만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과 사망자수가 치솟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6473명, 전남 6014명 등 1만248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광주와 전남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일부터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위중증 잔여 병상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날 현재 양 지역 통합 위중증 병상 150개 중 116개가 사용 중이다. 병상 가동률도 77%까지 치솟았다.

위중증 병상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광주·전남은 그동안 40%대 이하 위중증 병상가동률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확진자 폭증 이후 가동률이 높아졌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추가 병상 10여개 정도를 더 확보할 방침이지만 일일 중환자도 많은 만큼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년간 관련 사망자는 광주는 141명, 전남은 105명이다.

이날 6명이 사망한 광주에선 총 사망자 141명 가운데 111명(78.7%)이 오미크론이 확산한 지난해 12월 이후 사망했다.

전남에서도 이날 6명이 숨졌으며, 전체 사망자 105명 중 78명(74%)이 최근 3개월 동안 사망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높아졌고 사망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락공원 1곳뿐...화장시설 부족해 4일장 늘어

광주시, 가동률 확대·증축 추진

광주시가 화장(火葬)할 곳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4일장을 치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광주일보 3월 3일자 6면)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화장률은 2020년 기준 92.3%로 화장 중심 장례문화가 자리 잡았다. 그러나 광주 화장시설은 영락공원 1곳뿐이다.

화장로 10기의 하루 수용 능력은 36명에 그쳐 가동률이 100% 이상을 기록하기도 한다. 특히 고

령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환절기 등에는 유가족이 대기 시간 탓에 3일장이 아닌 4일장을 치르거나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았다.

광주시는 가동률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용성 광주시장은 “우선 화장로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화장 사이 간격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 가동률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아울러 화장시설을 증축하는 방안도 추진해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에 불편함까지 더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림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매주 금,토,일 광주출발 셔틀버스 운행

당일투어 1인 13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19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062-385-0515 에이티여행사: 062-382-8866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